마귀 갑질을 저항 극복하자

(다니엘 3:1~30)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귀 갑질을 저항 극복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귀 갑질을 저항 극복하자'

CNN과 뉴욕타임즈 등에서 우리나라의 갑질 현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갑질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갑질'이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를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들이 직원들을 노예 부리듯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편의점 주인들의 알바생에 대한 갑질, 백화점 VIP고객이 직원들에게 하는 갑질, 건물주가 세입자들에 대해 하는 갑질 등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질로 인해 을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아주 근원적인 마귀의 갑질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마귀의 숨은 활동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은밀한 활동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마귀의 활동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갑질을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갑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세계관을 보자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를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곧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권세를 잡은 모습이 다니엘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32~33절에서 묘사된 모습을 살펴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상은 곧 인간세계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치체계가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갑질은 인간세상의 가치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는 모습이 마귀의 갑질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없다면 금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아직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도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면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원인을 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상 가치를 앞세워 우리 마음에서 권세를 잡고 발길질을 해대는 모습입니다. 이 발길질에 채일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회사의 회장과 사모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멸감과 수치심이 생겨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갑질도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권세 잡은 자가 회장이듯이 마음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마귀의 갑질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집니다. 단순히 이 세상 가치가 없다고 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기에 세상 가치를 빌미삼아 마음에 갑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갑질의 특징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가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불행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마귀의 갑질을 타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갑질이 타도된 상태입니다. 또 중학교 졸업장 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졸자들 틈에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또한 마귀의 갑질을 타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갑질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중졸이라는 학력이 항상 마음을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없고 항상 부끄럽고 주눅이 들어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의 갑질을 타도한다면 명품이 없어도 말과 행동에서 공손함과 예의를 잃지 않으며 스스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갑질을 당한다면 명품백을 들고 있는 동창생들을 보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갖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충분히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체감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마음의 권세 잡은 마귀의 갑질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갑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저항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삶에서도 그 여파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권력에 순응해서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여기며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은 힘들고 괴로워지고 타인을 억압해서라도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 하기에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동안 행

복한지 또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금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곧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히 폭군적 황제 기질을 막무가내 식으로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로마나 중국의 황제들이 자신을 천자(天子)로 자칭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금 신상을 세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BC.586년의 예루살렘 정복 후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킴과 함께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국의 신전에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로써 인도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장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뒤에 금 신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맞추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며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놀라워했습니다.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금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만 47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진기로써의 인격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기 인격으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진기 인격이란 곧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좋고 나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기는 했지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 놀란 것입니다. 세상 것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영사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 왕국의 영토는 인도와 에티오피아까지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토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발산되는 창조의 역사

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많이 가지는 업적을 이루게 되면서 자아의식이 팽창하게 됩니다. 사진기로써의 체질이 활성화되는 중에 자아가 팽창해서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높이가 30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듦으로써 드러내고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절은 곧 존경의 표현입니다. 사실 사진기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금 신상과 왕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금 신상은 곧 세상의 가치를 가장 많이 얻은 자로써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풀무불로 협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모델들을 보면 세속적 가치를 극한까지 모은 자들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윈 등이 시대의 선구자로써 여겨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는 가치를 가장 많이 모으는데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마윈을 신으로 섬기는 그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대상은 마윈이 아닌 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심을 가지고 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땅 욕심을 가진 사람이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은 사실 땅이라는 가치에 대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절을 하고 있고 보물들에 절을 하고 있고 형통에 절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풀무불은 곧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돈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명품백이 없으면 동창회 가기를 창피하고 무섭게 여깁니다. 자녀가 일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 결과 고액과외라도 시켜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부모가 판검사 같은 고학력자일수록 자녀들의 학력으로 인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마음이 마귀의 풀무불에 삼켜지는 갑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 신상에 경배를 요구한 것은 곧 세상의 가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가장 많이 가진 자신은 경배 받아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회장님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돈 많은 회장이니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욕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참는 이유 또한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의 경고는 이미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해 놓은 가치들이 없으면 죽는 줄로만 압니다. 창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리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에서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결과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숨기면서 돈을 내세우고 건강을 내세우고 일류 대학과 명품과 형통 등을 내세웁니다. 세상의 가치가 없으면 절대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강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 가치를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데도 웃습니다. 건강하지 못한데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도 즐거워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풀무불이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함, 경제적 곤란, 육체의 질병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앞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마귀의 갑질에 대해 싸우고 저항해야만 합니다. 이들 또한 풀무불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돈이 없는 미래가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갑질임을 알고 싸우고 저항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갑질에 넘어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기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마귀의 갑질에 저항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이유 없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온갖 비난을 당하고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중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으면 나는 가짜 신앙인이며 가짜 목사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고,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귀가 갑질을 하는 세상에서 저항하고 싸울 때에 신앙은 성립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믿음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건강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애굽 했던 250만 명의 선민

들이 광야에서 사십년을 하나님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신앙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갑질에 대해 저항해나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갑질을 행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모멸감을 주고 위축되게 하고 자신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가 없는 너는 보잘 것 없는 존재다, 이 세상 가치가 없는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귀가 갑질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갑질에 넘어간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일곱 배나 달군 풀무불 앞에 선 것처럼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집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돈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해결로써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의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겠다는 고백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갑질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곧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마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금 신상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절하지 않은 것이고 세상 가치로 마음 채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도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세상의 가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 생활화는 복음으로써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건강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마귀의 갑질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없는데도 행복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돈 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도달하기를 기도할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같은 문제들을 제거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며, 행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머리털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곱 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던졌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절대로 마귀의 갑질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앞세워서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분노 시기 질투 등을 하게 하는 마귀의 갑질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고집하고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일곱 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의 물줄기를 댐으로써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마귀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능력이 하루 종일 함께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